

# 러시아 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삶의 질 변화:

중앙연방관구를 중심으로\*

최우익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조교수

---

본 연구는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변화와 특징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학적 상황도 점차 개선되면서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임금과 소득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이것은 주로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한 것이다.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또한,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내에도 일부 빈곤층이 존재한다.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지역적으로 삶의 질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생태 및 기후, 거주 안전 수준은 낮다. 중앙연방관구 북부와 중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낮으며, 인구학적 상황도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낮다. 중앙연방관구 남부 지역은 농업 및 광업 중심이지만, 주민의 소득 수준, 건강 및 교육, 경제 발전 수준이 양호하여 삶의 질 수준도 높은 편이다.

주제어: 삶의 질, 중앙연방관구, 소득, 수명, 교육

---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I. 서 론

2000년대 이후 러시아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학적 상황도 다소 개선되면서 이제는 러시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세계는 이미 ‘삶의 질’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과거에 인류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이제는 인간의 행복과 안녕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그동안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해 주로 사회 계층화 현상, 빈부 격차, 중간계층의 형성, 인구 및 이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도 주안점이 두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추진된 러시아의 정치, 사회·경제 개혁의 목표로써 삶의 질 향상 문제는 러시아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Зубрилин и др., 2003: 77-78).

본 연구는 러시아 국민 삶의 질 문제 중 특히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의 변화와 특징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년대 러시아 국민 소득이 상승하였고, 또한 매년 세계 각국과 각 지역의 삶의 질을 동일한 틀로 측정, 비교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러시아 인간개발지수(HDI)도 높아져 러시아 국민 삶의 질도 일정정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소득 상승이 면에 심각한 빈부격차 현상이 발견되는 것처럼, 과연 삶의 질 향상도 모든 국민에게 혹은 모든 지역 주민에게 균질하게 일어나는 현상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 외에도 다양한 러시아 내 연구기관들의 삶의 질 측정보고서를 활용하여 이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사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기관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때가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삶의 질 지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같이 큰 영토와 다양한 민족 및 문화가 존재하는 국가에는 그에 적절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다양한 삶의 질

지수 측정 방법을 활용하면 삶의 질 양상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타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II장에서 후술한다.

또한 러시아 국민 삶의 질 수준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중앙연방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러시아 국민 삶의 질 규명 문제에 대해 지역연구의 틀로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지역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는 시장개혁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소득, 빈곤 등에 대한 지역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해당 지역의 사회적 발전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의 지역연구이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나 주, 혹은 일정 지역 단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셋째는 국가 혹은 지방 행정단위 차원의 지역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대한 예산 수립이나 경제 및 사회보장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Зубаревич, 2012: 37-42).<sup>1</sup>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방향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에 대한 삶의 질 변화와 특징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2~93년 일련의 법 제정 절차를 거쳐 오늘날의 85개 연방주체(субъект федерации)가 탄생한 뒤(당시는 89개였다가 2000년대 후반 83개로 줄었고 최근 다시 85개로 늘어남), 연방관구(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는 러시아 연방 내부를 나누는 가장 큰 지역 단위로서 2000년 5월 13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다. 연방관구 단위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연방관구의 경계를 행정적으로 구획하는 데에서 그 지역이 지니는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징, 그리고 경제지구(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었다(Климанов, 2009: 58-69). 제정 당시에는 7개 연방관구가 있었지만 2010년 남부에서 북캅카스연방관구가 분리되어 현재 러시아에는 8개 연방관구가 있다. 이와 같

1. 이외에도 지역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Лексин и Швецов(2011: 828-838).

은 과정을 거쳐 연방관구는 현재 러시아의 가장 큰 지역 단위가 되었다.<sup>2</sup>

러시아의 지역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왕성하게 진행되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성과는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연방관구 차원에 대한 지역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나 국내 학계나 연방관구 차원의 지역연구는 여전히 간단한 정보와 통계수치를 정리하는 자료 차원에 머물러 있다(Глушкова и Симагин, 2013; 권세은 외, 2006). 하지만 연방관구 차원의 지역연구는 향후 러시아 전체와 개별 지역연구를 연결하는 중간 수준의 지역연구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앙연방관구를 택한 이유는 이곳에 수도인 모스크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이곳은 러시아 국민 삶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지역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및 문화로 인해 삶의 질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주요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최우익, 2014). 예를 들어 시베리아나 극동, 북서, 우랄 지방과 같은 곳에서는 자연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혹은 남부나 북캅카스 지방 같은 곳에서는 소수 민족의 혼재된 문화가, 혹은 노동력의 유입과 유출이 많은 석유나 가스 채굴지 같은 곳에서는 특수한 경제적 요인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특별한 요소들을 가급적 제거하고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양상을 추적하려면 적절한 연구 대상으로서 중앙연방관구를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의 가장 중심적이고 또 가장 일반적인 곳,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농업과 공업이 균형을 이루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중앙연방관구라 할 수 있다. 중앙연방관구에 대한 자세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특징은 III장에 후술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변화와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양한 삶의 질 지수 측

---

2. 러시아연방의 지역 체계는 위계에 따라 연방관구, 연방주체, 지방자치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각 수준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역 연합체가 존재한다(Климанов, 2009: 35-39).

정보고서를 비교함으로써 러시아 국민 삶의 질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중앙연방관구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연방관구 차원의 지역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양상을 유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유형화는 향후 다른 지역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비교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다양한 삶의 질 지수 측정보고서의 특징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 R. 바우어는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해 경제 지수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 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auer, 1966), 1970년대 많은 학자는 다양한 사회 지표들을 고안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질 연구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람들의 경제적 소득이 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삶이 더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학자들은 삶의 질이 단지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삶의 질 연구를 심리학과 결합시키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연구 영역을 등장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는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과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Anielski, 2007: 288).

그리하여 오늘날 삶의 질이란 인간 삶의 일정한 조건과 특징의 평가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또한 여기에서 해당 조건과 특징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삶의 질은 물질적 수준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며, 건강 상태, 평균수명, 환경 조건, 음식, 생활 편의,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고, 또한 문화적, 정신적 욕구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도 포함한다(Стёпина, 2001). 따라서 삶의 질을 연구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이용하여 자연, 경제, 사회적 측면 등을 연구하는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삶에 대한 주관적 의식이나 느낌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Герасимов и др., 2014: 5-6).

1990년대부터는 삶의 질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잇따랐다.<sup>3</sup> 즉, 해당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면에 걸쳐 지표들을 설정하고 측정하고자 노력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종합한 것을 ‘삶의 질 지수’라고 한다.

러시아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Гаврилова, 2004; Сидорова, 2002), 이론과 개념(Безьязычный и Шилков, 2004; Васильев, 2003; Задесенец и др., 2009), 러시아 지역 삶의 질에 대한 문제(Петропавлова, 2013; Неретина и др., 2004)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러시아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객관적 지표들에 기초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러시아 내의 각종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삶의 질 지수’(이하 QLI로 표현)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는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매년 문자해독률, 평균 기대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르면 1인당 GNP가 동일한 수준의 국가 간에도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크게 다른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부의 크기와 생활의 풍요로움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10).

이외에도 본 연구는 러시아 연구기관들이 분석한 지역별 삶의 질 지수를 활용한다.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정치 분석 및 예측 연구소(Лаборатория

3. 대표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국제경영개발(IMD)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일본 사회경제생산성 본부의 ‘풍요 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математических методо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и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에 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지역별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해 왔다. 때로는 측정 방법과 지표를 변화시켜 다양한 버전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5개 지표를 이용해 분석한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sup>4</sup>

또한, 본 연구는 러시아 언론사인 리아 노보스티(РИА Новости)의 전문 평가기관인 РИА Рейтинг의 ‘삶의 질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РИА Рейтинг의 ‘삶의 질 지수’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데, 조사 방식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삶의 질 지수’와 유사하다. EIU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 가족, 공동체, 물질적 수준, 정치적 안정성과 안보, 기후와 지리, 직업 안정성, 정치적 자유, 양성평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삶의 질 지수를 산정한다.<sup>5</sup> РИА Рейтинг 역시 크게 10개의 지표(세부적으로는 61개 지표)로 삶의 질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sup>6</sup>

각 연구기관의 삶의 질 지수 산정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이하 UNDP-HDI로 표현)는 협소한 지표를 산정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정치 분석 및 예측 연구소(이하 МГУ-QLI로 표현)와 РИА Рейтинг의 삶의 질 지수(이하 РИА-QLI로 표현)는 더 많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표 수의 차이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각 연구기관이 정의하고 초점을 두는 삶의 질의 측면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표 1>에 정리했다.

<표 1> 하단에 각 연구기관이 초점을 두는 삶의 질 지수의 차이점을 기술했는데, 더 간단히 그 차이를 표현하면 UNDP-HDI는 ‘개인’에, МГУ-QLI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및 자연 환경’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자의 지표는 거의 중복되지 않고 서로 다르다. 그런데 РИА-QLI는 양자의 지

4. Уровень и динамик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2006~2012 гг. [http://www.perspektivy.info/rus/gos/uroven\\_i\\_dinamika\\_kachestva\\_zhizni\\_v\\_regiona\\_h\\_rossii\\_2006\\_\\_2012\\_gg\\_2014-03-12.htm](http://www.perspektivy.info/rus/gos/uroven_i_dinamika_kachestva_zhizni_v_regiona_h_rossii_2006__2012_gg_2014-03-12.htm)(검색일: 2014.03.20).

5. [http://en.wikipedia.org/wiki/Quality\\_of\\_life\\_index](http://en.wikipedia.org/wiki/Quality_of_life_index)(검색일: 2014.03.10).

6.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31217/610601622.html>(검색일: 2014.03.15).

〈표 1〉 3개 연구기관별 삶의 질 지수의 차이점과 특징

UNDP-HDI	MGY-QLI	PIA-QLI
소득		소득 수준
수명		인구학적 상황
교육		건강 및 교육
	건강	
	주택 여건	주택 여건
	개인 안전성	거주 안전성
	빈곤 및 실업	사회 보장 제도
		영토 개발과 교통 발달
	생태 환경	생태 및 기후 여건
		경제 발전 수준
		소기업 발전 수준
개인에 관한 가장 단순화된 핵심 지표만 존재: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대한 검토 부재	소득, 경제, 교육 지표가 없고, 개인을 둘러싼 사회 및 자연환경에 초점: 개인 자체와 경제적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이 낮음	개인에 관한 핵심 지표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거시적, 미시적 경제조건, 그리고 지리적, 자연 환경적 요소도 고려: 다양한 요소를 골고루 검토함

표 모두를 거의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조건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삼자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삼자(개인, 환경, 개인+환경)의 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IV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관점의 차이에 따라 러시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달리 나타난다.

이 세 기관의 보고서는 또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UNDP-HDI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비교를 통해 러시아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거나 혹은 러시아 각 지역의 수준을 세계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의 지역별 HDI 측정은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 자료가 러시아 지역별 삶의 질 보고서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반면에 MGY-QLI는 2006~2012년까지만 보고서가 작성된 상태이며, PIA-QLI는 최근에 분석이 시작되어 현재는 2012~2013년의 보고서(실제 조사



대상 시점은 2011~2012년)만 존재한다. 또한, МГУ-QLI와 РИА-QLI는 러시아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UNDP-HDI와 차이가 있다. 각 보고서가 지니는 강점을 활용, 종합, 비교하여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을 살펴보면 더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II장에서는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12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담고 있는 가장 최근 출판된 러시아 통계청 자료 『Регионы России 2013』을 자료로 활용한다. 우선 중앙연방관구 주민에 대한 사회·경제 지표들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양상을 살펴보고 그다음 이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 III.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중앙연방관구의 면적은 65만km<sup>2</sup>로 러시아 영토의 3.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약 3,900만 명(27%)으로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많다. 특히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인구는 약 1,900만 명으로 중앙연방관구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Росстат, 2013: 20-21, 28-29). 중앙연방관구에는 17개 주와 1개 시 등 모두 18개 연방주체가 있다. 또한, 중앙연방관구는 중앙경제지구(Центра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와 중앙-흑토경제지구(Центрально-Чернозем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 등 2개의 경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에 13개 연방주체가, 후자에 5개 연방주체가 속해 있다.<sup>7</sup>

중앙연방관구 내에서 중앙경제지구에 속한 주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지리, 인구, 생산력, 과학기술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지역의 산업화는 사회주의적 근대화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무엇

7. 중앙-흑토경제지구는 벨고로드, 쿠르스크, 보로네시, 리페츠크, 탐보프 주이다. 행정적으로는 중앙경제지구(Центра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айон)에 속해 있지만, 역사,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오히려 흑토지대 지역과 유사하게 취급되기도 한다(Алексеев и Николина, 2003: 224-229).

보다도 모스크바가 가장 중추적이고 강력한 산업 근거지이다. 그 이후 모스크바 근방 그리고 그 주위로 수많은 산업 지대가 형성되었는데, 산업 종류와 내용별로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볼가 강과 오카 강 사이 섬유산업 중심의 동부 지역(야로슬라블 주, 이바노보 주, 블라디미르 주), 모스크바 주변 광물 매장 지대(틀라 주, 라잔 주, 오를 주), 브란스크 산업 지역(브란스크 주, 칼루가 주), 서부 지역(스몰렌스크 주, 트베리 주), 볼가 강 건너편 지역(코스트로마 주) 등이다(Хрущев, 2002: 407-426).

한편 중앙연방관구 내 5개 주가 속해 있는 중앙-흑토경제지구는 농업은 발달했지만, 공업 발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산업자원이나 노동력이 풍부한데, 이 양자가 결합한 철광석 채굴 산업이 발달했다(Кистанов и Копылов, 2005: 405-417). 중앙-흑토경제지구에 속한 주들은 격자 모양의 형태로 산업 거점들이 형성되어 있다.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는 철도 교차점에는 산업, 특히 기계제작, 철금속, 화학 산업 중심의 대도시들이 자리를 잡았다. 중소도시들은 주로 농업원료와 건축자재를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КМА(Курская магнитная аномалия)는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철광석 매장 지대이며 벨고로드 주와 쿠르스크 주에 걸쳐 있고 이곳 산업은 거의 철광석 채굴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러시아 철광석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며, 철광석은 리페츠크 주의 금속 기업들로 보내져 가공된다(Хрущев, 2002: 436-445).

그런데 1990년대부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바뀌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앙연방관구 산업 생산량과 취업자 수도 현격히 줄었다. 경제지구별로 볼 때 중앙경제지구의 1999년 산업생산량은 1990년에 비해 35% 남짓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앙-흑토경제지구의 산업생산량은 동기간 50%로 감소했다(Голубицкая и Санин, 2001: 31, 49).

하지만 이처럼 시장 개혁기에 산업 생산량이 줄고 단일 경제 공간이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연방관구는 2000년대에 점차 회복되어 이제 다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생산력, 고정자산, 노동력, 과학기술, 경제 및 사회 기반시설 면에서 현재 중앙연방관구는 다른 연방관구들을 압도하고



그림 1.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있으며, 2011년 시점 국내 총생산량의 36%, 농업생산의 23%, 제조업의 30%, 수출 및 수입의 44% 및 61%를 담당하고 있다(Росстат, 2012: 20-21, 28-29). 또한, 시장관계와 경제 기반시설이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고, 금융 및 신용 체계, 운송 및 정보 서비스, 외국 투자, 외국합작기업이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다. 또한, 제조업과 농업을 아우르는 산업복합단지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단, 일부 연료, 에너지, 광물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외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Морозова, 2002: 289-290).

이와 같이 중앙연방관구는 내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역할 분담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사회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연방관구의 경제활동인구는 2012년 시점 약 2,104만 명, 연평균 취업자 수는 1,881만 명으로 이것은 각각 러시아연방 전체의 28%에 달한다(Росстат, 2013: 88-91). 8개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중앙연방관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곳이 국가 경제의 중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앙연방관구 기업체 노동자의 평균 명목임금 수준은 2000년까지는 러시

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위권이었으나, 그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2년 시점에는 전체 연방관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Росстат, 2013: 32-33, 162-163). 소련시대부터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극동연방관구와 우랄연방관구였다. 그 이유는 극동연방관구는 인간이 거주하기 힘들고 경제활동에 불리한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노동력 유입을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랄연방관구는 그러한 요인에 더해 러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을 위해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의 임금 수준은 계속 상승하여 우랄연방관구를 앞질렀고, 극동연방관구와도 격차를 좁히고 있다. 그만큼 중앙연방관구의 경제적 역동성은 단시간에 극대화되었다.

그런데 중앙연방관구 내부적으로 볼 때 주별 임금 수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83개 연방주체 중 모스크바 시는 5위(50,628루블), 모스크바 주는 14위(32,303루블)를 차지할 정도로 임금 수준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주는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중 브란스크 주(75위), 이바노보 주(69위), 탐보프 주(73위)는 최하위권이다(Росстат, 2013: 20-21, 32-33). 따라서 중앙연방관구 노동자의 평균 명목임금이 전체 연방관구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사실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의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취업률은 2012년 시점 8개 연방관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실업률은 가장 낮아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취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연방관구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지역마다 동일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83개 연방주체 중에서 모스크바 시(5위)나 모스크바 주(6위), 리페츠크 주(11위)의 취업률은 높지만, 보로네시 주(66위), 탐보프 주(67위), 랴잔 주(69위)의 취업률은 상당히 낮다(Росстат, 2013: 32-33). 또한, 경제활동인구 비율 면에서도 모스크바 시(72.2%), 모스크바 주(72.8%)는 평균 수준(68.7%)을 웃돌지만, 랴잔 주(63.5%), 탐보프 주(64.1%), 보로네시 주(64.6%)는 훨씬 밑돈다(Росстат, 2013: 106-107). 이처럼 중앙연방관구 내부에서 취업 및 실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지역별로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연방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 변화(단위: 1995년 천 루블, 그 이후 루블)<sup>8</sup>

	1995	2000	2005	2010	2012	2012(순위)
러시아연방	516	2281	8088	18958	23058	-
중앙연방관구	692	3231	10902	24645	29721	1
북서연방관구	565	2269	8996	19837	23403	4
남부연방관구	309	1592	5757	15114	18603	6
북캅카스연방관구	-	1130	4537	13253	17076	8
볼가연방관구	369	1726	6229	15840	19597	5
우랄연방관구	605	2744	9581	21832	26175	2
시베리아연방관구	494	1933	6731	15007	18322	7
극동연방관구	649	2498	8989	20807	25326	3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주요한 특징 중 또 하나는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높다는 점이다. 중앙연방관구의 고등교육자 비율은 2012년 시점 35.8%로 전체 평균인 30.4%를 훨씬 웃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모스크바 시(49.3%)와 모스크바 주(38.0%)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이 양 지역의 취업자 수는 중앙연방관구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중앙연방관구 전체 고등교육자 비율을 높인 것이다. 반면 다른 주들은 모두 전체 평균 수준보다 낮을 뿐 아니라 트베리 주(22.7%)와 리페츠크 주(23.3%)를 비롯한 몇몇 주의 고등교육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Росстат, 2013: 112-113). 중앙연방관구 안에서도 지역마다 취업자의 고등교육자 비율은 이처럼 상당히 대조적이다.<sup>9</sup>

〈표 2〉는 연방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의 양적 수치를 정리한 것인데,

8. 1995년은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1), сс. 148-149. 2000~2012년은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13), сс. 160-161.
9.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연방관구 취업자의 교육 수준은 높은 편인데, 그것은 사실 그만큼 교육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연방관구의 만 명당 고등교육 학생 수의 비율은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높다. 83개 연방주체별로 보았을 때도 모스크바 시(1위)뿐 아니라 벨고로드 주(15위), 보로네시 주(8위), 쿠르스크 주(4위), 오몰 주(7위), 랴잔 주(21위) 등 여러 지역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Росстат, 2013: 32-33).

2000년에 비해 2012년의 소득은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였다. 중앙연방관구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방관구 중에서 줄곧 소득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순위는 2위인데, 임금 이외에 주민의 기업소득, 사회지급금(연금, 보험 등),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인당 월평균 소득의 측면에서 중앙연방관구는 1위를 차지한다. 역시 83개 연방주체별로 보았을 때 모스크바 시(3위), 모스크바 주(10위) 주민의 소득 순위는 최상위권이다(Росстат, 2013: 32-33).

그런데 중앙연방관구의 20% 집단별 소득 총액의 격차 현상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2012년 시점 최상위 소득 수준 20% 집단의 총소득액 비율을 살펴볼 때, 모스크바 시를 제외한 모든 주는 전국 평균 비율(47.6%)보다도 낮다. 모스크바 시는 그 비율이 무려 53.3%에 달한다. 또한, 모스크바 시의 소득격차율은 전국 평균인 16.4배보다 훨씬 높은 27.3배이며, 지니 계수도 0.486인 등 상당한 빈부 격차 현상이 보인다.<sup>10</sup> 모스크바 시의 이 지수들은 모두 전국 1위지만, 나머지 주의 소득격차율이나 지니 계수는 모두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다(Росстат, 2013: 176-177). 따라서 중앙연방관구 중 바로 모스크바 시, 그리고 그중에서도 유독 상위 소득 20% 집단에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경제활동은 러시아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임금과 소득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이들의 취업률과 교육 수준도 연방관구별로 볼 때 상위권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앙연방관구 주민은 시장경제 러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중앙연방관구 지역 내에서 균등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즉,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주민의 임금 수준, 취업률과 실업률, 교육수준의 지표상 순위는 83개 연방주체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지만, 나머지

10. '소득격차율'은 최고 소득 20% 집단 주민 내의 평균소득과 최저 소득 20% 집단 주민 내의 평균소득의 격차 비율을 뜻한다. 지니계수는 통상 0.4가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뜻한다.

주들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표는 이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한편 모스크바 시민의 소득격차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그 내부에도 일부 빈곤층 주민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소득, 취업, 경제 여건은 내부적으로 매우 대조적이며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층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의 삶의 질은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V.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삶의 질 변화와 양상

##### 1. UNDP-HDI를 통해 본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삶의 질 변화

먼저 II장에서 언급한 세 기관의 보고서 중 UNDP-HDI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대 러시아 국민 삶의 질 지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지역에 대한 UNDP-HDI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측정 방법으로 축적된 데이터이기도 하며, 러시아 지역별 삶의 질이 상승하는 과정과 수준을 다른 나라와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2006년에 HDI 0.8이 넘었는데, 당시 HDI 상위 수준 국가이자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경계가 바로 0.8이었다(ΠΡΟΟΗ, 2011: 137). 83개 러시아 연방주체별로 보았을 때 HDI 0.8이 넘는 러시아 내부 지역은 2004년에는 4곳에서 2006년에는 12곳으로 늘었고, 그중 모스크바는 0.9가 넘었다. 2006년 시점 HDI 상위수준 지역에 러시아 인구 중 거의 30%가 거주했고, 그곳에서는 인간개발 수준을 끌어올릴 만한 자원과 가능성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인 대부분은 여전히 HDI 중위수준 지역에 거주했다. HDI 0.75 이하의 하위수준 지역에는 인구 중 6%가 거주했는데, 이곳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발전이 곤란한 곳으로 평가되었다.<sup>11</sup>

11. <http://atlas.socpol.ru/indexes/>(검색일: 2014.03.16).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면서 2009년 러시아 각 지역 HDI 상승 속도도 둔화되었다.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HDI는 전년도의 0.838에서 2009년에는 0.840으로 근소하게 올랐다. 2009년에는 HDI 0.8이 넘는 지역에 러시아 인구의 85%가 거주하게 되었고, HDI 0.7 미만 지역은 이제 사라졌다(ПРООН, 2011: 138-139). 따라서 2000년대 전반적으로 러시아 각 지역의 HDI는 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항상 1위를 차지한 모스크바시는 HDI가 2001년 0.852, 2006년 0.907, 2010년 0.931, 항상 마지막 순위를 차지한 티바 공화국도 HDI가 각각 0.646, 0.691, 0.750으로 상승하는 등 러시아 각 지역 주민 삶의 질 지수는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sup>12</sup> 세계 속의 러시아 국가 HDI 순위도 2000년대 중반에는 60~70위권이었지만 2010년에는 55위로 올랐다.<sup>13</sup>

비교적 짧은 시간에 HDI가 급속히 치솟은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소득과 평균수명의 상승을 꼽는다(ПРООН, 2010: 137). HDI 상승을 주도한 대표적인 지역들은 주로 연료 및 에너지 자원 채굴지이거나, 석유정제업과 금속산업이 발달한 곳이며,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국민 소득도 상승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마련된 연방재정을 바탕으로 국가가 주도한 ‘건강’(Здоровье)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역시 HDI 상승에 기여했다.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여 연료와 금속의 국제가가 하락하거나, 연방재정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지역 HDI 상황은 나빠지곤 했다(ПРООН, 2011: 138).

〈표 3〉은 2004~2010년까지 매년 UNDP-HDI 보고서 중 중앙연방관구 각 주의 HDI 순위(83개 연방주체 중)만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HDI의 절대수치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앙연방관구에서도 계속 높아졌다. 즉, 중앙연방관구 지역 중 HDI 순위가 가장 낮은 이바노보 주의 경우도 HDI가 2004년 0.717에서 2010년 0.778로 오르는 등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 각 주

12. 다음 참조 <http://atlas.socpol.ru/indexes/index.shtml>(검색일: 2014.03.06.); <http://gtmarket.ru/news/2013/06/17/6014>(검색일: 2014.03.15).

13. 다음 참조 [http://ru.wikipedia.org/wiki/Индекс\\_развития\\_человеческого\\_потенциала](http://ru.wikipedia.org/wiki/Индекс_развития_человеческого_потенциала)(검색일: 2014.03.14) 및 각종 러시아 지역관련 HDI 보고서.



〈표 3〉 2000년대 83개 연방주체 중 중앙연방관구 각 주의 UNDP-HDI 순위 변화<sup>4</sup>

조사시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벨고로드 주	9	5	6	5	5	6	5
브란스크 주	67	68	66	67	67	67	64
블라디미르 주	65	58	60	62	66	63	62
보로네시 주	37	34	40	38	37	29	43
이바노보 주	74	74	73	73	76	74	77
칼루가 주	42	48	51	47	41	36	34
코스트로마 주	64	60	59	55	61	65	54
쿠르스크 주	23	26	30	27	29	21	14
리페츠크 주	6	6	7	13	10	13	17
모스크바 주	39	29	31	28	23	26	35
오를 주	21	25	29	29	33	32	29
랴잔 주	33	37	38	51	47	47	47
스몰렌스크 주	59	54	62	58	62	62	57
탐보프 주	40	45	46	42	50	50	55
트베리 주	63	67	63	66	64	69	66
툴라 주	60	57	50	53	49	55	59
야로슬라블 주	18	21	18	21	24	23	23
모스크바 시	1	1	1	1	1	1	1
순위 평균	40.06	39.72	40.56	40.89	41.39	41.06	41.22

의 UNDP-HDI는 모두 높아졌다. HDI 0.9 이상은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2010년 시점 모스크바는 0.931이며, 0.8이 넘는 지역도 14개 주에 달하고, 0.8 미만 지역은 3곳에 불과하다.<sup>15</sup>

14. 다음 사이트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임.

<http://atlas.socpol.ru/indexes/>(검색일: 2014.03.16);

<http://www.protown.ru/information/hide/7927.html>(검색일: 2014.03.15);

<http://gtmarket.ru/news/state/2010/10/29/2715>(검색일: 2014.03.14.);

ИПООН, 2010; ИПООН, 2011; ИПООН, 2013. HDI는 보통 조사 실제 시점보다 2년 후에 보고서가 작성되어 발표되는데, 본 연구에서 기술되는 연도는 조사 시점의 연도라는 것을 밝혀둔다. 2010년 조사된 내용은 2013년에야 발표되었고, 현재로써는 그것이 가장 최근 지역 관련 보고서이다.

하지만 83개 연방주체 차원에서 보았을 때 중앙연방관구 각 주의 HDI 순위는 다양한 수준에 흩어져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모스크바 시(1위), 벨고로드 주(5위) 등은 최상위 수준에, 이바노보 주(77위), 트베리 주(66위) 등은 최하위 수준에, 기타 주들은 중상부터 중하 수준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또한, 코스트로마 주(64→54위), 쿠르스크 주(23→14위)처럼 순위가 점차 올라갔거나, 라잔 주(33→47위), 탐보프 주(40→55위)처럼 내려간 주들도 일부 있다. 이처럼 중앙연방관구 내 각 주의 삶의 질 수준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연방관구 차원에서 매년 각 지역 HDI 순위 평균치를 산출해보면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수준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면, 중앙연방관구 주들의 순위 평균치는 미세하게 등락을 반복하다 2004년(40.06)에 비해 2010년(41.22)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대체로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 주들의 HDI 순위 평균치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었다.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평균 임금과 소득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더 나아가 다른 연방관구보다 그 순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순위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HDI에는 소득뿐 아니라 수명 및 교육 지수가 함께 산정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수준은 연방관구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sup>16</sup>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주관적 만족도나 상대적 관점도 중요한데 특정 지역 삶의 질 지수의 절대적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면, 사실 그 지역 삶의 질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렇게 만족할만한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 세계 차원에서 2000년대

15. [http://ru.wikipedia.org/wiki/ИРЧП\\_субъектов\\_Российской\\_Федерации](http://ru.wikipedia.org/wiki/ИРЧП_субъектов_Российской_Федерации)(검색일: 2014.05.23.).

16. HDI가 향상되지 못한 이유로 특히 수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중앙연방관구는 2000년대 후반까지도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난 대표적 지역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산업체가 있는데, 시장 개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혁기에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학적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Колеченков, 2009: 16-26).

러시아 국가의 인간개발지수의 절대 수치가 오르고 또 상대적 순위도 올랐지만,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은 답보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 2. 각종 지수를 통해 본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삶의 질 양상

이번에는 UNDP-HDI뿐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의 삶의 질 지수를 연방관구 차원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 순위 평균은 각 연방관구별 내부 지역의 순위를 산출한 것인데, 우선 각 연구기관의 삶의 질 지수는 산정 기준과 방법이 달라서 서로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 연구기관 내의 결과치를 보며 상대적인 추이를 분석할 수 있을 따름이다. 우선 UNDP-HDI의 연방관구별 양상을 보면, 중앙연방관구는 8개 연방관구 중 2001년이나 2010년 모두 5위를 차지한다. 즉, 순위가 오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평균적인 삶의 질 수준 자체도 다른 연방관구와 비교했을 때 중하 수준에 있다(〈표 4〉 참조).

〈표 4〉 8개 연방관구별 내부 지역의 HDI 순위 평균치<sup>7</sup>

	UNDP-HDI		МГУ-QLI		РИА-QLI	
	2001	2010	2006	2012	2011	2012
중앙연방관구	41.7	41.2	25.9	22.7	28.0	25.4
북서연방관구	38.3	33.1	39.3	37.5	43.3	44.4
남부연방관구	36.8	45.2	36.7	40.3	37.8	38.0
북캅카스연방관구	47.0	65.7	39.0	40.2	67.8	67.2
불기연방관구	29.2	35.3	31.8	32.6	34.9	34.7
우랄연방관구	30.5	21.5	44.2	49.7	24.8	27.0
시베리아연방관구	48.2	42.2	62.8	62.8	55.2	57.1
극동연방관구	49.0	38.9	65.3	65.8	54.2	54.9

17. 다음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83개 연방주체별 삶의 질 지수 순위를 필자가 연방관구 단위로 평균치를 산출함. [http://atlas.socpol.ru/indexes/table\\_IRCHP.shtml](http://atlas.socpol.ru/indexes/table_IRCHP.shtml)(검색일: 2014.03.16.); ПРООН, 2013;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е агенство Восток России, 2012); РИА Рейтинг, 2013.

그런데 MGY-QLI와 PIA-QLI의 중앙연방관구 지역 순위 평균은 2012년 시점 22.7위와 25.4위로 각각 8개 연방관구 중 제일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참조). 왜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바로 II장에서 설명했듯이 각 기관이 바라보는 삶의 질에 대한 관점과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MGY-QLI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및 자연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연방관구 삶의 질 수준은 다른 연방관구와 비교할 때 가장 높다. PIA-QLI에는 개인에 관한 요소도 있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조건 그리고 지리적, 환경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연방관구 삶의 질 수준은 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할 때 UNDP-HDI처럼 개인적 요소에 초점을 둔다면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수준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더 중시하는 MGY-QLI와 PIA-QLI에 따르면, 중앙연방관구는 자연환경과 기후 면에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큰 장애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설이 상대적으로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두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연방관구의 삶의 질 지수가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세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18. 중앙연방관구 이외에 다른 연방관구들의 삶의 질 지수가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MGY-QLI에서 가장 낮은 순위 평균치를 보이는 곳은 극동(2012년 65.8위)과 시베리아연방관구(62.8위)이며 그다음은 우랄연방관구(49.7위)이다. 그것은 이곳이 다른 연방관구에 비해 사회적 제도의 발달이 미흡하다는 점과 열악한 자연환경 및 기후적 측면을 지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및 자연환경뿐 아니라 개인소득 및 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PIA-QLI에 따르면 경제적 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 열악한 사회 및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라도 삶의 질 지수의 순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환경적 요소에 대한 지표가 아예 없는 UNDP-HDI 측면에서는 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우랄연방관구는 UNDP-HDI에서는 순위가 21.5위(2010년), PIA-QLI에서는 순위가 27.0위(2012년)로서 정상권에 있다. 이것은 이곳에 최대 규모의 석유 및 가스 채굴지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지표를 고려하는 두 연구기관에서 우랄연방관구의 삶의 질 지수 순위는 당연히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북캅카스연방관구는 UNDP-HDI(2010년 65.7위)와 PIA-QLI(2012년 67.2위)에서 제일 하위권이다. 하지만 MGY-QLI에서는 2012년 40.2위로서 중위권이다. 즉, MGY-QLI에서는 북캅카스연방관구

〈표 5〉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2013년 PIA-QLI 보고서의 각 세부 지표별 유형화<sup>19</sup>

중앙연방관구	소득 수준	주택 여건	사회 보장	생태 기후	거주 안전	인구 상황	건강 교육	영토 개발	경제 발전	소기업	종합 순위
A	모스크바 시	1	1	2	53	64	2	1	2	1	1
	모스크바 주	7	4	61	45	31	5	3	3	6	3
B	코스트로마 주	61	50	31	41	18	64	37	48	63	52
	이바노보 주	49	19	27	38	63	65	38	20	72	41
	블라디미르 주	46	7	39	20	58	72	54	7	35	44
	랴잔 주	39	30	22	36	72	60	32	19	39	52
	트베리 주	46	27	49	31	56	72	69	26	44	44
	스몰렌스크 주	53	20	32	17	45	67	52	18	51	17
	브랴نس্ক 주	48	22	52	21	23	82	64	12	64	43
	톨라 주	28	58	52	47	43	69	20	5	40	38
	오를 주	40	34	35	11	76	71	42	13	61	61
	탐보프 주	52	11	70	11	1	76	11	29	67	31
C	야로슬라블 주	24	21	3	14	32	46	34	21	24	12
	칼루가 주	16	52	56	15	51	51	39	10	19	34
	리페츠크 주	19	9	71	42	39	54	41	9	31	15
	보로네시 주	23	53	50	23	10	39	4	17	32	4
	쿠르스크 주	34	30	69	3	28	57	16	7	42	58
	벨고로드 주	15	15	47	5	11	30	18	6	28	23

PIA-QLI에서는 세부적인 지표 순위와 수치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그 수치들을 활용하여 중앙연방관구 각 지역 삶의 질 양상을 유형화한 결과가 〈표 5〉이다.

먼저 중앙연방관구 주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소득 수준, 주택 여건, 생태 및 기후, 건강 및 교육, 영토 개발, 소기업 발전 지표들은 83개 연방주체 중 대부분 상위 및 중위권이다.<sup>20</sup> 하지만 일부 주의 사회 보장, 거주 안

의 열악한 개인의 경제적 지표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중위권이 가능한 것이다(최우익, 2014).

19.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한 표임. PIA Рейтинг, 2013.

20. 본고에서 상위권은 83개 연방주체중에서 1~25위, 중위권은 26~59위, 하위권은 60~83위로 범위를 구분하였다.

전, 경제 발전 지표는 하위권이며, 특히 절반 이상 주들의 인구 상황 지표는 하위권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UNDP-HDI가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곳의 인구학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역시 PIA-QLI에서도 중앙연방관구의 많은 주에서 인구학적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PIA-QLI의 각 세부 지표별 순위를 고려할 때 경계가 완벽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본 연구는 대체로 3개의 집단으로 중앙연방관구 각 지역 주민 삶의 질의 양상과 특징을 유형화하였다(〈표 5〉 참조). 먼저 A형 집단으로 대도시와 그에 인접한 소도시 지역으로 구성된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PIA-QLI 대부분 지표는 최상위 수준인데, 다만 생태 및 기후, 거주 안전, 사회 보장(모스크바 주만 해당) 지표는 중위 및 하위권이다. 특히 모스크바 시의 생태 및 기후는 중앙연방관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표는 83개 연방주체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B형 집단에 속하는 주들은 중앙연방관구에서 대체로 북부와 중부 지대에, C형 집단은 주로 남부 지대(단, 야로슬라블 주는 북부, 칼루가 주는 중부)에 위치해 있다. 이 두 유형 집단의 공통점은 주택 여건, 생태 및 기후, 영토 개발 지표는 거의 상위 및 중위권에 있다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B형 집단은 소득 수준, 경제 발전 지표가 중위 및 하위권이며, 탐보프 주와 툴라 주를 제외한 건강 및 교육 지표도 중위 및 하위권이다. 사회 보장 지표(탐보프 주는 하위권)는 대체로 중위권이지만, 인구 상황 지표는 하위권이다. 앞서서도 중앙연방관구의 인구학적 상황이 열악하다고 언급했는데, 바로 이 집단에 속한 주들의 인구학적 상황이 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즉, 특징을 요약한다면 B형 집단 주들의 다수 지표는 중위 및 하위권이며, 특히 인구학적 상황이 좋지 않고, 소득 수준도 중앙연방관구 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형 집단은 종합 순위에서도 중앙연방관구 내에서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다.

C형 집단은 소득 수준, 건강 및 교육, 경제 발전 지표는 상위 및 중위권이

며, 인구 상황 지표는 중위권이다. 사실 C형 집단은 리페츠크 주와 쿠르스크 주의 사회 보장 지표만 하위권인 점을 제외하고 모든 주의 모든 지표가 중위권이자 상위권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B형 집단보다 삶의 질 지수가 높다. 이곳은 농업 및 광업 중심 지역이지만 중앙연방관구 내에서 삶의 질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야로슬라블 주와 칼루가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주는 모두 중앙-흑토경제지구에 속한 주들이다.

이와 같이 РИА-QLI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삶의 질 양상은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그리고 대체로 북부와 중부에 위치한 주들, 마지막으로 주로 남부에 위치한 중앙-흑토경제지구 중심의 주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러시아에서 1990년대에 시작한 시장개혁과 2000년대에 추구한 현대화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인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의 영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혁을 통해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부격차나 가치관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 사회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연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기관의 삶의 질 지수 측정보고서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앙연방관구는 러시아 국민 삶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UNDP-HDI는 ‘개인’에, МГУ-QLI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및 자연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РИА-QLI는 양자의 지표 모두를

거의 포괄하고 있는 삶의 질 지수 분석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료의 상이한 관점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들을 활용했는데, 각 자료의 차이점 자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UNDP-HDI는 가장 단순한 지표로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이에 따라 다채로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내부에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MGY-QLI와 같은 자료가 유용한 점이 있다. PIA-QLI는 양자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분석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 예야 분석이 시작되어서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중앙연방관구 주민의 소득, 취업, 경제 여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은 러시아의 다른 연방관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하지만, 내부적으로 매우 대조적이며 상반된 양상을 띤 지역 및 집단으로 나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층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실제로 개인의 소득, 수명, 교육의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은 러시아에서 중하위 수준이다. 단,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제도 및 자연 환경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삶의 질은 상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연방관구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삶의 질 양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생태 및 기후, 거주 안전 수준은 낮다. 중앙연방관구 북부와 중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낮으며, 인구학적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곳 삶의 질 수준은 낮은 편이다. 중앙연방관구 남부 지역은 농업 및 광업 중심지이지만, 주민의 소득 수준, 건강 및 교육, 경제 발전 수준이 양호하여 삶의 질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편 중앙연방관구는 특히 주택 여건, 생태 및 기후, 영토 개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방관구들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대체로 양호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던 인구학적 위기는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문제에서도 여전히 상흔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삶의 질 양상의 유형화는 향후 다른 지역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비교의 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객관적 지표들에 의한 삶의 질 지수들을 활용하여 중앙연방관구 주민 삶의 질 양상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내용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따지는 데에서 주관적 만족도나 심지어 느낌이나 인상과 같은 매우 가변적인 의식도 오늘날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연구에 비해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투고일자: 2014-11-10 심사일자: 2014-12-12 게재확정: 2014-12-26

## 참고문헌

- 권세은 외. 2006. 『중앙연방지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1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 최우익. 2014. 「러시아 국민 삶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다양한 지수측정 보고서의 비교 분석」. 『러시아연구』(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제24권 제1호. pp. 217-244.
- Anielski, M. 2007. *The Economics of Happiness: Building Genuine Wealth*. Canada: New Society Publishers.
- Bauer, R. 1966. *Social Indicators*. London: Cambridge.
- Алексеев, А. И., Николина, В. В. 2003. *География: население и хозяйство России*.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 Безъязычный, В. Ф., Шилков, Е. В. 2004.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Рыбинск: РГАТА.
- Васильев, А. Л. 2003. *Россия в 21 веке.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и стандартизация*. Москва: РИА Стандарты и качество.
- Гаврилова, Т. В. 2004. “Принципы и методы исследова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Технологии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Т. 4, № 2.
- Герасимов, Б. С., Сизикин, А. Ю., Спиридонов, С. П., Герасимова, Е. Б. 2014. *Управление качеством: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Москва: ФОРУМ.
- Глушкова, В. Г., Симагин Ю. А. 2013.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Москва: КНОРУС.
- Голубицкая, М. В., Санин, И. И. 2001.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Сатурн-С.
- Задесенец, Е. Е. и др. 2009.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Смысл.

- Зубаревич, Н. В. 2012.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и тенденции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Москва: ЛИБРОКОМ.
- Зубрилин, Ю. В., Маликов, Н. С., Акимова, С. В. 2003. “Стратеги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5. сс.
-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е агенство Восток России. 2012. *Уровень и динамик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2006-2012 гг.* Москва.
- Кистанов, В. В., Копылов, Н. В. 2005.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и*. Москва: Финансы и статистика.
- Климанов, В. В. 2009. *Региональные системы и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Едиториал УРСС.
- Колеченков, Н. В. 2009.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катастрофа: основные черты, причины и пути решения.” Троицкий, Е. С.(ред.),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и в обстановке кризиса 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Москва: Граница.
- Лексин, В. Н., Швецов, А. Н. 2011. Реформы и регионы: Системный анализ процессов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становления федерализма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Москва: ЛЕНАНД.
- Морозова, Т. Г. 2002. *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ЮНИТИ-ДАНА.
- Неретина, Е. А., Салимова, А., Салимов, М. Ш. 2004. “Субъективные индикаторы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Стандарты и качество*, № 11.
- Петропавлова, Г. П. 2013. *Управление качеством жизни для населения региона*. Ростов-на-Дону: Издательство Рост. ун-та.
- ПРООН. 2010.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М.: ПРООН в РФ.
- \_\_\_\_\_. 2011.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1*. М.: ПРООН в РФ.
- \_\_\_\_\_. 2013.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3*. М.: ПРООН в РФ.
- РИА Рейтинг. 2013.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Москва.
- Росстат. 201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_\_\_\_\_. 2012.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_\_\_\_\_. 2013.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Сидорова, И. М. 2002.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и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ачество и жизнь*, № 1.
- Стёпина, В. С.(ред.) 2001. *Новая философ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4 тт.* Москва:

Мысль.

Хрущев, А. Т. 2002.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 Москва:

Дрофа.

<http://atlas.socpol.ru/indexes/>(검색일: 2014.03.16.).

<http://atlas.socpol.ru/indexes/index.shtml>(검색일: 2014.03.06.).

[http://atlas.socpol.ru/indexes/table\\_IRCHP.shtml](http://atlas.socpol.ru/indexes/table_IRCHP.shtml)(검색일: 2014.03.16.).

[http://en.wikipedia.org/wiki/Quality\\_of\\_life\\_index](http://en.wikipedia.org/wiki/Quality_of_life_index)(검색일: 2014.03.10.).

<http://gtmarket.ru/news/2013/06/17/6014>(검색일: 2014.03.15).

<http://gtmarket.ru/news/state/2010/10/29/2715>(검색일: 2014.03.14.).

<http://riarating.ru/infografika/20131217/610601622.html>(검색일: 2014.03.15).

[http://ru.wikipedia.org/wiki/Индекс\\_развития\\_человеческого\\_потенциала](http://ru.wikipedia.org/wiki/Индекс_развития_человеческого_потенциала)(검색일: 2014.03.14).

[http://ru.wikipedia.org/wiki/ИРЧП\\_субъектов\\_Российской\\_Федерации](http://ru.wikipedia.org/wiki/ИРЧП_субъектов_Российской_Федерации)(검색일: 2014.05.23.).

<http://www.protown.ru/information/hide/7927.html>(검색일: 2014.03.15.).

Уровень и динамик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2006-2012 гг.

[http://www.perspektivy.info/rus/gos/uroven\\_i\\_dinamika\\_kachestva\\_zhizni\\_v\\_regi-onah\\_rossii\\_2006\\_\\_2012\\_gg\\_2014-03-12.htm](http://www.perspektivy.info/rus/gos/uroven_i_dinamika_kachestva_zhizni_v_regi-onah_rossii_2006__2012_gg_2014-03-12.htm)(검색일: 2014.03.20.).

## Socio-economic Situation and Change in Quality of Life in Russian Society: Focusing on the Central Federal District

Wooik Choi

HK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change in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t Russian Central Federal District (CFD). Since 2000, while the income of the popul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demographic situation has been improved, Russian people become mor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life in these days. The income of the population at the CFD has increased dramatically, but this is mainly related to the residents of Moscow city and Moscow oblast. Excluding the both,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the left oblast is not that good. Also, there is somewhat the poor in Moscow city and Moscow oblast.

In this situati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t the CFD is largely divided into 3 types. The quality of life in Moscow city and Moscow oblast is significantly high, but the level of ecological and climatic conditions and life security is low. The income level of the residents of north and central regions at the CFD is low, and demographic situation is also bad. So its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is overall low. South region at the CFD is agricultural and mining center, but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is high, because the income of the population, condition of health and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have good situation.

Keywords: Quality of Life, Central Federal District, Income, Life, Education